



## 특 | 기 | 획

# 위치 공유 앱 “젠리”, 경각심 필요해



최근 들어 위치 공유 앱 “젠리(zenly)”가 MZ 세대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이 앱은 2015년 처음 개발되었고 2017년 “스냅”에 인수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6월 11일 기준 플레이 스토어에서 5,000만 회 이상 다운로드, 리뷰가 52만 개에 달할 만큼 인기가 뜨겁다. 반면에 앱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젠리는 친구들끼리 위치를 공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간단한 메신저 기능도 있어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일반 SNS보다 더욱 자세하고 편리한 소통이 가능하다. 게다가 간단한 버튼과 귀여운 애니메이션, 친구의 스마트폰 배터리 잔량, 수면 시간까지 나타나 있어 10대들의 친밀감을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젠리에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다. 위치 공유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같다. 위치가 투명하게 공개되니 자신의 집이 어딘지, 학원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인지,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등을 모르는 사람도 쉽

게 확인할 수 있어 스토킹이나 납치, 학교폭력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광주서부경찰서 오금택 여성청소년계장의 남보일보 기고문에서 실제 학교폭력 상담사례로 젠리의 위험 사례를 볼 수 있다. 또래 무리에서 멀어진 이유가 친구들과의 약속에 사유를 밝히고(부모님과 장례식 참석) 불참했으나 친구들이 젠리를 통해 확인한 위치가 장례식장이 아니었고, 거짓말쟁이로 낙인 찍혀 무리에서 멀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물론 위치를 숨기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안개 모드와 얼음 모드로 나뉘는데, 안개 모드는 대략적인 내 위치만을 알 수 있다. 얼음 모드는 자신의 위치가 그전 위치에 고정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위치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두 방법 모두 일시적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위치가 숨겨지지 않는다.

또한 젠리는 상당한 양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다. 젠리 홈페이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위치 정보, 배터리 잔량,

전화번호, 주소록, 젠리로 메시지를 보낸 시간 및 날짜와 같은 통신 데이터, 친구와의 만남 빈도에서부터 헤드폰의 연결 여부, 전화 이름, 전화 하드웨어 모델, 운영 체제 버전, 전화기의 광고 식별자, 고유한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활동에 관한 데이터들을 모두 수집한다.

조선에듀 기사에 따르면 손석한 연세신경정신과 원장은 “젠리는 친구와 경계를 허물고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의 심리를 건드린 앱”이라고 분석했다. 손 원장은 “지나치게 친구에게 간섭하거나 집착하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대방 사생활을 존중하면서 앱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했다.

젠리를 통해 친구들과의 다양한 또래 문화를 즐기되, 위험성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아 기자

- [ 1면 / 기획 ] 위치 공유 앱 “젠리” 경각심 필요해
- [ 2면 / 청소년의 눈 ] [양케이트] 청소년의 사회적 관심 현황
- [ 3면-1 / 문화부 ] <그해 우리는> 촬영지와 함께하는 화성시민 추천 여행코스!
- [ 3면-2 / 개인 ] 잠시 쉬어 가는 거 어때요? 당신을 힐링시킬 소다미술관
- [ 4면-1 / 개인 ] 잘못된 채식,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
- [ 4면-2 / 개인 ] 코로나 이후 증가한 해외여행, 청소년을 위한 해외여행은?

- [ 5면-1 / 개인 ] 공립 책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 5면-2 / 개인 ] 사회의 첫걸음인 학교의 중요성이 낮아지다
- [ 6면-1 / 개인 ] 지역화폐의 양면성
- [ 6면-2 / 개인 ] 그저 ‘개’가 아닌 ‘안내견’을 아시나요?
- [ 7면-1 / 개인 ]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 [ 7면-2 / 개인 ]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승자 없는 싸움
- [ 7면-3 / 개인 ] 신조어는 무엇일까?
- [ 8면 / 홍보 ]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 기자단활동 이야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청소년활동 안내



청소년의 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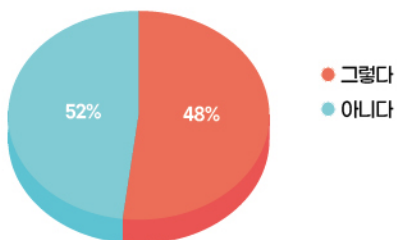


청소년의 관심사에 관한 질문

올해로 14년째가 된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관내 청소년 100명에게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기자단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시민들이 어떤 주제에 관한 기사를 읽고 싶은지 물었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촉법소년에 대한 견해도 들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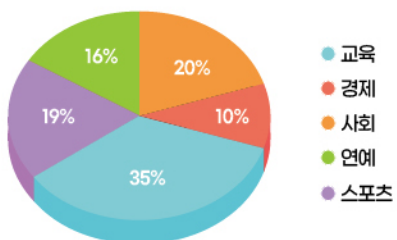
화성시청소년기자단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응답 100개



내가 읽고 싶거나 또는 쓰고 싶은 기사 분야는 무엇인가?

응답 100개



가장 먼저 화성시청소년기자단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화성시청소년축제부스에서 응답한 청소년들이 많은 덕분에 과반이 그렇다고 대답했지만, 아니라는 질문도 52%로 과반수 이상이였다. '읽고 싶거나 쓰고 싶은 기사의 분야'에 대한 질문에 교육 관련 기사라는 대답이 35%로 가장 많았고 사회 관련 기사가 20%, 스포츠 관련 기사가 19%로 뒤를 이었다. 연예 관련 기사는 16%, 경제 관련 기사도 10%로 적지 않은 응답률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청소년들은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읽고 쓰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읽은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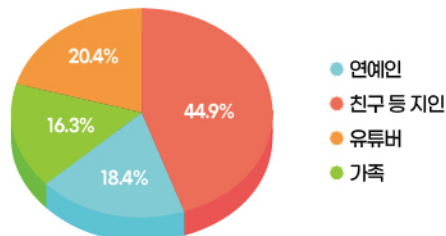
응답 28개(주관식)

최근 읽은 기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에 관한 질문에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다. 응답자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교육' 관련 주제였고 그 뒤로 재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아동 학대, 아동 폭력, 가정 학대' 등 폭력 피해 아동 관련 주제가 인상 깊었다고 대답했

다. 그 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미국 총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인상 깊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남녀평등, 페미니스트 등 젠더갈등과 관련된 이슈도 청소년들의 관심 영역에 해당했다.

내가 기자단이 된다면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은?

응답 98개



'내가 기자단이 된다면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에는 친구 등 지인이 44.9%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유튜버(20.4%), 연예인(18.4%), 가족(16.3%) 순이었다. 유튜버, 연예인보다 가족이나 지인의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청소년이라면 알아야 하는 촉법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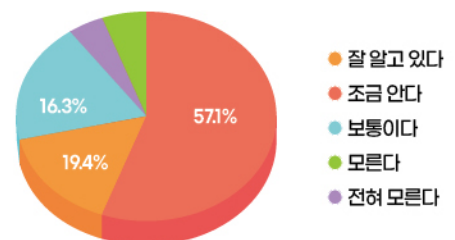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촉법소년 :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들이 과거보다 신체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무분별한 미디어 노출이 잦아지면서 범죄의 잔혹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촉법소년 기준 나이를 낮추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에 대한 관내 청소년들의 생각을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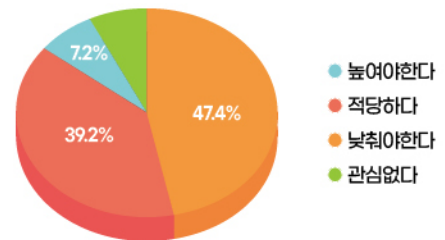
촉법소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응답 98개



현재의 촉법소년 나이에 동의하는가? (10세 이상 14세 미만)

응답 97개



촉법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냐는 질문에 57.1%가 조금 안다고 대답했고 19.4%가 잘 알고 있다, 16.3%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모른다는 의견과 전혀 모른다는 의견은 7.2%로 대부분의 사람이 촉법소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촉법소년 나이에 동의하는가?'에는 47.4%가 낮춰야 한다고 답했지만 39.2%는 적당하다고 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속도감 있는 검토를 지시하는 등 소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연령 하향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소년법의 취지는 처벌이 아닌 보호적 교화라는 점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사랑 멘토

응답자 소개

화성시 관내 청소년 총 100명 11-13세(초등(고)27명) / 14-16세(중학생 : 57명) / 17-19세(고등학생 16명)

응답 기간

2022년 06월 11일 ~ 2022년 06월 25일

응답 방법

구글 폼(온라인설문조사) / 현장설문지(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



문 화 부

# 그해 우리는 촬영지와 함께하는 화성시민 추천 여행코스!



## <그해 우리는> 드라마로 만나는 화성의 매력!



2021년 12월 6일의 첫 방송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25일에 막을 내렸던 SBS 인기 드라마 <그해 우리는>의 촬영지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시와 인근 지역인 수원시에 있다.

PD 홍성창, 한해원 작가가 구성한 이 드라마는 10년 전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이라는 소재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를 시작으로 인연을 맺은 두 주인공의 10년 후 그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다시 찍게 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 장면들을 잘 살펴보면 익숙한 장소들이 나타난다. 주연 최우식, 김다미 등이 출연했던 "그해 우리는"에서 주인공 최웅의 집, 국연수의 집은 옆 동네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성 인근에서, 최웅의 작품을 전시한 전시회의 촬영 장소였던 소다 미술관을 비롯한 제부도, 궁평항은 화성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중 주인공의 집이었던 최웅과 국연수의 집, 소다 미술관을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수원시 행궁동에 위치한 지동 벽화마을 안쪽에 위치한 여자 주인공 국연수의 집이었다. 드라마에서는 집 대문 부분만 촬영했고 집 내부는 세트장을 이용하여 촬영했다고 한다. 촬영했던 때와 현재의 모습의 차이점은 거의 없지만 집 주소 표지판의 숫자 부

분만 변화되어 있었다. 드라마에서 촬영했던 지동 벽화마을은 다양한 주제로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한글을 이용해 꾸민 벽화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많이 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최웅의 집이다. 최웅의 집은 수원 화성 북포루 바로 앞에 있는 위치한 정원 있는 2층짜리 하얀색 양옥집이다. 예전에는 카페로 운영했었지만 현재는 빈 건물로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내부에 들어갈 수 없지만 드라마가 종영한 지 4달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많은 관광객들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화성시에서 버스 한 번에 갈 수 있으니, 화성시 인근 산책 및 데이트 코스로 추천한다. 수원 화성-최웅의 집-국연수의 집까지 도보 40분 정도면 가능하다.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화성시에 위치한 소다 미술관이다. SBS <그 해 우리는> 드라마 15화에 주인공 웅이가 자신의 전시회를 연 부분에서 등장했다. 소다 미술관은 오랫동안 방치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디자인 건축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창작자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문화 재생 공간이다. 오는 10월까지 "층층층", "질문하는 그림들"이라는 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술관 내에 예쁜 카페도 있으니 전시도 관람하고 맛있는 음료 한 잔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추천한다. 같은 전시회 기간 동안은 1회 입장권으로 무제한 재관람이 가능하다.

네 번째 촬영 장소는 화성 서쪽에 위치한 바다인 제부도이다. 제부도는 2021년 12월 23일 전국학과 제부도를 잇는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됐다.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케이블카로 바다 위로 이동하는 2KM 구간을 포함하여 총 2.12km이다. 물 때 시간표를 알아보고 들어가야 했던 제부도를 이제는 물때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다. 4월부터 평일(월~금) 11시부터 1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제부도 순환버스를 운행 중이며, 서해랑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티켓 제시 시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화성시민 할인 혜택도 있으니 당일치기 여행지로 추천한다.

마지막 촬영 장소는 경기도 유일의 국가어항이자 대표적인 관광어항 궁평항이다. 궁평항은 해수욕장, 캠핑장, 수산시장, 갯벌체험장, 해송숲 등 주말이면 서울, 경기지역에서 몰려온 차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는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다. 가족 체류형 숙박시설인 궁평 유스호스텔(2023년 개관 예정)도 건립 예정으로 향후 화성시에서 발전 가능성이 큰 관광 지역 중 하나로 예측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열광했던 <그 해 우리는> 드라마의 촬영지 5곳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화성시는 매우 넓은 지역이다. 화성시에 살고 있지만 소다 미술관처럼 모르는 장소들도 많을 것이고, 제부도와 궁평항처럼 기존 장소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 예상한다.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화성시의 한 주민으로서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예쁜 곳들을 찾아다니며, 여가시간도 즐기고 화성시를 아끼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규민, 양진재, 윤관 기자

## 잠시 쉬어 가는 거 어때요?

## 당신을 힐링시킬 소다미술관

소다 미술관은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에 위치한 화성시 최초의 사립 미술관이다. 건축, 디자인, 예술 영역을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담고 있다.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돼 철거될 위기였던 대형 찜질방을 새로운 유형의 건축물로 리모델링한 소다 미술관의 테마는 Red Project로, 재발견-재해석-재생산의 디자인 순환과정을 통해 일상에서 버려진 사물이나 생각에 생명력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아가, 단순히 창작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창작자와 대중이 소통할 수 있는 매체로



써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미술관 내부에 테라스 및 야외 공간들이 있어 한적하게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소다 미술관은 시군별로 다양한 전시회를 운영하는데 현재 2022년 5월 5일(목)부터 2022년 10월 30일(일)까지 '층'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와 2022년 5월 7일(토)부터 2022년 10월 9일(일)까지 관람할 수 있는 '질문하는 그림들'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건축 요소 중 하나이자 위계, 권력, 계층, 세대 등을 함의하고 있는 '단(段)'을 주제로 하여 현 사회의 문제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질문하는 그림들'은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술을 통해 질문해 보고자 한다. <QnA : 질문하는 그림들>에 함께 하는 회화와 애니메이션, 그림책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다양한 자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림은

편향된 인식과 기준에서 오는 차별과 혐오, 타인에 대한 폭력과 무심함 그리고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소다 미술관의 또 다른 특징은 전시 기간 내 재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지난 방문에 구매한 티켓과 함께 셀카를 찍은 후 인증하면 전시 기간 내 언제든지 재방문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주차공간을 따로 소지하고 있고 미술관 내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실제로 화성시 소다 미술관에 방문했던 손님들의 네이버 방문자 리뷰에는 "한적하고 소규모 미술 전시도 보고 음료도 마시며 힐링하기 좋아요"라는 등 관람하기 좋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 답답한 일상 속, 도심 속 미술관 소다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구경하고 쉬는 시간을 즐기는 화성시민이 많아지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진재 기자

# 잘못된 채식,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아



## 식품영양학자들, “3분의 1 정도의 동물성 단백질도 섭취해야”

한국채식연합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20년 250만 명으로 2018년(150만 명)에 비해 10배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빠르게 증가하는 채식 인구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물론 채식주의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채식은 많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채식주의의 같은 선별적인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다. 2014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대의 연구진들이 오스트리아인을 채식주의 그룹과 육식을 하는 그룹으로 분류해 연구한 결과 채식주의자는 알레르기를 겪는 확률이 2배에 달했으며 심장병, 암 등의 발병 소지도 50%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터프츠대의 크리스티나 에코노모스 박사가 진행한 연구에서 “4년 동안 대학생의 식생활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채식주의 학생이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부족해 영양 불균형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비타민 B12는 달걀, 생선, 유제품,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으로, 부족할 경우 피로, 호흡 곤란, 식욕 감소와 체중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게는 빈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채식주의를 고집하게 되면 칼슘, 단

백질, 비타민, 철, 아연과 같은 영양소의 섭취가 부족해져 임산부에게는 골다공증 질병이 생기게 되고, 태아의 두뇌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이 채식하면 뼈 성장에 필요한 칼슘이 부족하여 영양 불균형과 저체중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채식의 위험에도 채식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돼지나 소와 같은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의 이슈화이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를 차지하는 등 축산업으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가축의 사육 및 도축 환경에 민감해졌다. 이에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채식에 대한 수용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조성중 교수는 “콩에는 필수아미노산 중 하나인 메티오닌과 라이신이 풍부하지만 시스틴·트립토판은 부족하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식품 영양 학자들 역시 “단백질의 3분의 1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식물성 단백질만으로는 근육뿐 아니라 피부·머리카락·손톱과 같은 인체 조직의 원료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채식을 하고자 한다면 채식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인지한 후, 올바른 채식을 결정하길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민아 기자

## 코로나 이후 증가한 해외여행, 청소년을 위한 해외여행은?



지난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대신, 공존을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With) 코로나’의 시행으로 여행업계에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국내 백신 접종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고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협의를 맺은 여행안전권역 나라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이 출시했으며, 올 3월 \*트래블버블 누적 여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호텔스닷컴, 코리아 웹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고 국제선이 늘어나기 시작한 올해 5월 해외여행 검색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455%나 상승한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2019년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국내 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조사인원(1,130명)의 87%(9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이 주어지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66%)과 휴식(30%)을 손꼽았다. 그 외 대답으로는 아르바이트와 공부, 독서, 게임 등이 1% 내외로 선택을 받았다. 여행을 간다면 가고 싶은 여행지를 묻는 설문에는 청소년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내 보다는 해외로 가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같이 여행가고 싶은 멤버로는 친구(64%)가 가족(36%)보다 많은 선택을 받았으며, 중학생 60%, 고등학생 66%가 친구와 여행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고학년일수록 또래와 여행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

여행사 ‘탄뎀’의 경우 청소년 가치여행이라는 해외 배낭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과 ‘참가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시즌별 탐방 국가를 구성하고 인솔자 및 유학생들과의 멘토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올 7월부터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운영중이다. (사)한국체육진흥회-한국청소년화랑단에서도 청소년 해외탐방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운영을 멈춘 상태이다. 타연령층에 비해 청소년 관련 여행상품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이 있더라도 해외 자원봉사와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과 같이 목적성 상품이 대부분으로 안전 및 경비부담이 크다.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 가족, 신혼부부, 커플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 문화나 역사 예술을 콘텐츠로 한 패키지와 자유 여행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처럼, 청소년들을 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여행업계에도 새로운 바람과 트렌드들이 왕성해질 수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지원 청소년 여행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경비 부담이 완화되고 안전성이 강화되어 청소년들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양진재 기자

\*트래블버블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이 잘되고 있는 국가 안에서는 자유로운 관광을 허용하는 말

# 공립 책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 도심 속 책과의 특별한 만남, 송파 책 박물관 •

높아지는 문화 수요를 충족하는 송파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송파 책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책장을 열고 책의 레이어 속으로 들어서는 듯한 느낌의 건물외관부터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송파 책 박물관은 개관 3주년을 맞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책 박물관이다. 지하 1층~2층으로 구성된 건물 내부 어디서든 책을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체험 활동들이 마련돼 있다. 지하 1층~지상 2층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보이는 수장고)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수장고를 관람할 수 있으며, 교육을 진행하는 공간으로 사용한다.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북키움'은 세계명작 동화를 즐거운 상상과 다양한 감각으로 새롭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책 체험 전시실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어울림홀, 키즈 스튜디오, 카페 라운지 등도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2층에는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미디어 라이브러리와 야외정원이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오는 8월 31일까지

개관 3주년 기념행사로 '안녕, 나의 친구들!' 전시가 열리고 있다. '월간 매거진 Chaeg(책)'과 함께 진행하는 이 전시는 Chaeg(책)에서 발행한 어린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데이비드 위스너, 페요, 에르제 등의 해외 유명 작가 그림 책에 수록된 이미지와 책을 함께 볼 수 있다. 함께 진행 중인 '잡지 전성시대-대중, 문화 그리고 기억'이라는 전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종합 잡지 '소년'부터 '여원', '선데이서울' 등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주요 잡지 및 잡지 관련 자료 등 15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놓았다. 나만의 잡지와 엽서를 꾸며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상설전시장에는 2023년 12월까지 '향유-선현들이 전하는 책 읽는 즐거움', '소통-세대가 함께 책으로 소통하는 즐거움', '창조-또 하나의 세상, 책을 만드는 즐거움'이 전시되고 있다. 관람은 휴관일을 제외한 10:00 ~18:00까지 가능하다.(입장마감 : 폐관 30분 전)



※휴관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상설전시실의 경우 전시물의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도록 '휴대용 오디오 가이드(무료 대여)'와 전시공간의 'QR코드'라는 관람안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및 기관(15명~20명)은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및 02-2147-2486으로 문의할 수 있다.

무료 박물관이지만 알차게 구성되어 있는 송파 책 박물관, 예쁘고 감각적인 도서관에서 책도 보고 무료 전시도 즐기며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지민 기자



# 사회의 첫걸음인 학교의 중요성이 낮아진다

## 점차 어린 연령대까지 학교 자퇴율의 증가의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는 인간이 태어나 가정 다음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이다. 학교는 가족이 아닌,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경험하는 첫 단추인 만큼 또래집단형성 및 모방학습 등의 과정을 통해 자아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점차 공교육의 보편성 추구, 공식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한 획일성으로 인해 다양한 학습이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하면서 중·고등학생, 심지어 어린 연령대인 초등학생까지 자퇴하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단기 쉼터, 보호관찰소 등 3,213명을 대상으로 '202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대체로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27.3%), 초등학교(15.8%)의 순이었다. 2018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고등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 3.6% 낮아졌지만, 중학생은 0.4%, 초등학생은 3.4% 높아졌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가 고등

학교 시기에는 낮아졌지만, 초등학교 시기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자퇴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41.4%)보다 후회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58.1%)이 더 많았으며, 2015년 이후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자퇴를 이전보다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2021년 기준, 자퇴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37.2%로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의 약 10~20%의 학생들만이 수업에 집중할 만큼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떨어졌고,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 정신적인 문제(23.0%) 등의 이유로 자퇴하기도 했다.

점차 증가하는 자퇴율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교육부에서는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최소 2주부터 최대 7주까지 숙려 기간과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인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퇴를 희망했을 때 자퇴원을 제출하는 즉시 처리하지 않고, 상담 기회를 줌으로써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

업 중단 예방과 적극적 개입으로 학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학생들이 자퇴하는 사유 중 하나였던 학습 의욕 하락과 적성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통해 학생의 소질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적성을 발현하고 학습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학교 내 대안교실은 지난 2012년 대전 범동중학교가 첫 시범 운영한 이래로 효과가 입증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교육부가 발간한 '민간 위탁형 공립 대안학교의 운영 현황 및 발전 과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학교 내 대안교실은 1,299개교에서 운영되고 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점차 개선돼 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며 "앞으로 학교 밖에서도 학업과 진로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빈 기자

# 지역화폐의 양면성



## 지역화폐의 단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해당 지역 내에서 대형마트, 백화점을 제외한 음식점, 마트 등과 같은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역화폐는 1996년 강원도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을 시작으로 저조한 사용률을 이어 오다, 2020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한 경기 침체 해결 방안으로 대두됐다.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10% 인센티브를 주는 지자체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정이 지역화폐 활성화로 이어졌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 204곳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약 84%의 높은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역화폐의 단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제는 대중화된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단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지역 화폐 갭' 문제이다. '갭'이란 지역화폐를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고 '현금화'하여 차액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만들어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가맹점 취소 및 최대 2천만 원

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유통 방지에 힘쓰고 있으며, 추가로 올해 7월 1일부터 공정한 지역화폐 유통과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를 위해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두 번째, 지역화폐의 근원적인 원동력은 세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화폐를 축소 및 중단하고 있다. 지난해 최대 8%였던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는 4% 이하로 떨어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화성시 역시 7월부터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6%로 낮춘 운영 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20년 발표한 '지역화폐와 소비자 상생 방안 연구' 정책 연구 자료를 보면, 세금 부족을 대비한 지역화폐 지속 가능 발전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활동과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실제 성남시 외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원봉사, 기부금품, 재능 나눔 등의 활동을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여 일정 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정치 경제 연구소 대안의 조혜경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 즉 신뢰 자본에 기반을 뒀야 성공하고 지속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는 정부가 지역화폐 자체와 발행 비용, 할인율 등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이 끊기면 해당 지역화폐도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를 지속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역화폐는 자본이 지역 내에서 회전하며 지역 내부의 경기를 활

성화시키고 지역 공동체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는 인센티브, 소득공제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 역시 가맹비 부담이 없고, 새로운 소비자 유입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며, 가맹점 홍보를 통해 가게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이나 산후조리비와 같은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도민에게는 복지 증진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향후 지역화폐는 여러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문화 예술이나 도서 구매 등에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설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대중교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결제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신규 복지정책이나, 업무추진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지역화폐는 다른 정책과 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듯,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화폐의 양면성을 인지하고 장단점을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빈 기자

\*가맹점 : 어떤 조직이나 기관에 가입한 가게나 상점



# 그저 '개'가 아닌 '안내견'을 아시나요?

## 시각장애인들의 소중한 동반자, 안내견의 사회적 인식

안내견은 시각장애인들의 암흑 속의 환한 빛 같은 존재이다. 혼자서 갈 수 없는 길도, 안내견과 함께라면 문제없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내견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순간이 많다. 외국에서 셰퍼드 등 다양한 대형견 견종들이 안내견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안내견 견종은 래브라도 레트리버뿐이다. 이는 '순하게 생기고', '무뎠고', '조용하기' 때문이다. 대형견 자체에 거부감이 있다 보니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의 안내견 훈련과정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안내견은 우수한 부모견 사이에서 태어나며, 생후 7주 무렵에 일반 가정집에서 사회화를 배우는 퍼피워킹 과정을 1년간 거친다. 이후 8개월간 전문 훈련 과정을 마치고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안내견이 될 수 있다. 교육받는 10마리의 강아지 중

단 3마리 정도만이 안내견 최종 시험에 합격한다. 정말 완벽하게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야 하기에, 안내견은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선발된다. 또한 평가 항목 중에는 '안내견 일을 즐기고 있는지'도 점점 항목에 포함된다. 이는 안내견이 결코 억지로, 불행하게 안내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저 개란 이유로, 안내견 입장을 거부하는 장소가 여럿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 유튜브 '우렁'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 안내견과 겪게 된 유명 식당 입장 거부 일화를 전한 바 있다. 식당에서 안내견과 함께 웨이팅하고 있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말했고, 안내견이라고 했는데도 재차 '덩치가 커서 안 된다'라고 안내견 입장을 거부했다. '공간이 좁고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계시 수 있다'는 이유였다. 정말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다면 자리를 피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손님들 중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밝힌 분은 없었는데도 여전히 직원, 부점장, 점장 모두 안내견을 따로 두고 입장하

며 안내견 입장을 강력히 거부했다.

1993년을 시작으로 국내 안내견 양성이 본격화된 지 29년이 지났지만, 안내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버스나 택시, 전철 등 대중교통뿐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에서도 안내견을 일한 개 취급하며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내견에 대한 대우가 온전해질 때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이채은 기자



##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 심각성을 알고 계신가요? 기후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식량위기

우리가 사는 지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올여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밀 생산량이 많은 인도는 1901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21년 만에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폭염으로 인해 밀 생산량이 감소하고 밀값이 오르자 인도는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지난 5월, 밀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설상가상 쌀 생산량마저 줄어들면서 쌀 수출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워야 할 겨울의 고온 현상 가속화, 지속되는 여름철 가뭄과 같은 기후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농작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떠한 위기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약 63%가 꿀벌의 수분으로 생산되는 만큼 꿀벌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15년 사무엘 S 마이어 하버드 공중보건대 교수팀은 학술지 '탄셋'을 통해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난과 영양 부족으로 한 해 142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두 번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경지 부족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100년 동안 지표면 온도 상승폭은 1.8도가 넘는다. 기상청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080년에는 남한의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권으로 변화되고 농경지의 62.3%가 아열대 기후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 추세대로 온난화가 계속될 경우 2060년에 다가올 대한민국의 변화로 국내 쌀 생산량 22.2% 감소, 대표적 사과 생산지인 경북 사과 생산불가,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10분의 1로 감소 등을 제시했다.

세 번째, 이상기후로 인한 토지황폐화이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은 현재 지구의 40%에 달하는 토양이 황폐해지

면서 인류의 절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 GDP의 절반(44조 달러)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토양을 황폐화할 경우, 2050년까지 남아메리카 크기의 지역의 토양황폐화가 진행되며, 최대 2억 1,60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이 될 것이라 예측한다.

지난해 교육부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 5개 관계부처와 함께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 교육을 접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통해 학교에서부터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5개교를 선정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유아기부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를 접할 수 있도록 유치원(2개교)까지 포함하여 총 20개교를 선정했다.

탄소중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가 직면한 해결 과제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과정이기때 더 많은 교육 공동체에서 탄소 중립 교육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규민 기자

##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승자 없는 싸움

우크라이나 전쟁, 백린탄, 군인 인권,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시민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의 '군사 작전' 개시 선언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포격이 시작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됐다. '세계 군사력 2위'라고 평가받는 러시아에게 약소국인 우크라이나가 빠른 시일 안에 점령당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놀라운 국민 단결력으로 우크라이나는 8월 현시점까지도 맞서 싸우고 있다. 이미 병합한 크림반도를 포함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22%를 점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끔찍한 전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의 표면상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NATO(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군사 동맹) 가입 추진과 서유럽의 동부 진출 방지, 천연 가스관 확보이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는 과

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땅이었을 때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천연가스 수출관을 깔았다.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경우, NATO에 의해 러시아 안보위협과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침공 5개월이 지난 7월 25일까지 발생한 민간인 전쟁 희생자를 집계해 보니 5,237명, 민간인 부상자는 7,035명이었다. 전쟁터를 피해 고향을 등진 우크라이나 피란민도 4,100만 명에 달하며, 세계 최대의 난민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침공국인 러시아는 피해가 없을까? 아니다. 러시아 역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전쟁으로 숨진 러시아 군인은 1만 5천 명, 부상 군인은 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군보다 더 많은 인

원이다. 두 국가는 인명 피해 외에도 경제적 손실, 식량부족 등 막대한 손실을 받고 있다. 승자 없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은 두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가 유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식량 안보 위협과 같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듯, 이 전쟁은 당사국 외에도 전 세계, 즉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전쟁 손실이 멈추기를 희망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윤 관 기자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신조어란 한 언어 공동체 안에서 새로 생겨난 말을 뜻한다. 줄임말, 고유어와 영어를 합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만들어진다.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된 국립국어연구원의 신조어 조사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81%)이 신조어를 사용했으며, 10대 20대 연령층이 87%로 가장 높았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유행어에는 '어쩔티비', '트롤' 등이 있다.

이러한 신조어의 사용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이를 사용하면서 간결한 언어 표현이 가능하여 지루한 대화에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또래 집단에서 친근한 의사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

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된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이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고등학생 4,809명을 대상으로 한 교복 브랜드 스마트 학생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구들이 사용한다는 이유가 50%로 가장 높았고, 긴 문장을 적는 것이 귀찮아서(25%), 재밌어서(10%), 유행에 뒤처질까 봐(6%)가 뒤를 이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신조어 사용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분별하고 과한 신조어 사용으로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고,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될 수 있으며, 또래 간의 의사소통에서도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소외감이 느껴질 수 있



다. 즉, 대화의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학교나 가정에서는 신조어에 대해 단순히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닌, 신조어의 양면성이 무엇인지 이해시키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세랑 기자

## 2022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 기자단활동 이야기

화성시가 주최하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화성시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는 '2022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이 3년 만에 돌아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이 2022년 6월 11일 토요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열렸다. 동탄 센트럴파크 축구장에서 '청소년! 우리는 찬란한 봄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화성시청소년페스티벌은 청소년과 시민 등 총 2000여 명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30여 개의 체험부스들은 특수분장 메이크업, 네일아트, 가족공예체험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고 누구나 참가 가능한 스탬프 투어 역시 먹거리를 상품으로 내걸어 축제의 재미를 한층 더했다. 스탬프 투어 부스 중 하나였던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2022년 상반기 그린나래 신문 기사에 쓰일 앙케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 때문에 집콕했던 우리. 내가 가보고 싶은 or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는 어디?'라는 주제로 진행된 앙케트 조사에서는 제주도(142명)가 가장 많았고, 강원도(42명), 경기도(18명), 경상도(17명), 전라도(16명), 충청도(11명)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설문 앙케트를 조사하면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화성시청소년기자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청소년기자단은 연간활동으로 진행되며, 현재 14기 기자단원 13명이 활동 중이다.

화성시청소년기자단 김사랑 멘토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가을학기 청소년활동 안내

###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

진로가 고민이라면?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에서 함께 나눠요~  
체험부스, 특강, 직업체험까지 청소년 진로에 대한 모든 것.  
화성시청소년진로박람회로 초대합니다♥

활동시기 | 10월 8일(토)  
활동장소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활동내용 | 진로체험부스, 진로콘서트,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문의 | 031-267-8856



### 청소년 e-스포츠 대회

일시 | 2022년 10월 8일(토)  
장소 | 유엔아이센터 실내체육관  
대상 | 전국 14~19세 청소년 160명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선착순)  
참가비용 | 무료  
시상금 | 총 125만원  
문의 | 031-267-8853



### 화성시청소년골든벨

화성시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있니?  
화성시청소년골든벨을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퀴즈대회에  
참여해 화성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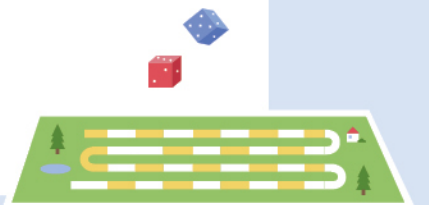
활동시기 | 10월 29일(토), 10월30일(일)  
활동장소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활동내용 | 화성시 분야별 지식에 대한 퀴즈대회 운영  
문의 | 031-267-8854



### 청소년놀터 '숨사탕'

화성시청소년수련관 3층!  
청소년을 위한 놀이터가 있다?!  
플스, 웹툰, PC, 재미있는 보드게임까지 자유롭게 이용해요!

운영시간 | 평일(화~금) 12:00~21:00  
주말(토~일) 09:00~18:00  
휴관일 | 매주 월요일, 법정공휴일,  
첫째·셋째 일요일  
문의 | 031-267-8732



## 그린나래 26호

- ◎ 발행기관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 발행인 박찬열
- ◎ 심사지도 이경윤, 공소리(리버럴미디어 기자-멘토)

## 화성시청소년기자단 14기

이채은(나루고1), 김규민(이산고1), 김세빈(방교중3),  
양진재(능동중2), 윤관(능동중2), 이지민(석우중2),  
김민아(와우중1), 김세랑(방교중1)

화성시청소년수련관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http://unicenter.hswf.or.kr/>